2026. 3. 30

금융 Weekly Insight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 – 다만, 구조적 리스크는 아니라는 점에 초점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3월 다섯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와 관련된 우려가 높아짐.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각각 2.2%, 4.0%, 4.4%의 조정을 시현. 고유가 고환율 심화에 따른 우려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시 국내 석유화학 업종은 물론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우려 확대.
- 이에 금융 업종 또한 단기적으로 최대 관건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환경하에서 1) 증권 업종은 금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운용 손익 감소, 2) 보험은 금리 상승기 방어력이 주목받을 수 있을 전망.
- 3) 은행 업종은 매크로 우려 확대 및 유동성 공급 역할 강화 등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하지만, 현재의 리스크가 구조적 이슈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중장기 긍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유효하다고 판단.

금융 Overview

- 은행 –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단기 투자 심리 악화 가능. 다만, 현재 리스크는 구조적 이슈가 아님을 인지 필요: 은행주는 2.2%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는 고환율 고유가는 물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매크로는 물론 차주 이자부담을 가중, 은행 펀더멘털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더 나아가, 과거 고유가 환경과 달리 실제 원유 관련 수급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인 점 고려 필요. 이러한 환경하에서 은행들에 대한 역할 강화 요구는 높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석유화학 업체 LC 확대가 대표적.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는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하지만, 현재의 위기가 구조적이 아닌 일시적 이슈에 기인하고, 은행들의 Valuation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 오히려 중장기 긍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유효하다고 판단.
- 증권 –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를 기회로 판단할 구간: 증권 업종 주가는 4.0% 하락하며 KOSPI와 유사한 흐름을 시현. 1) 주가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2) Valuation 멀티플 부담이 존재하는 일부 종목 또한 관찰되면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유가 급등 or 환율 급등)에서는 섹터 심리 또한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다만, 머니무브 흐름에 기반한 거래대금 증가 및, 생산적 금융 등 증권사 구조적 성장 기회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업종 지수 조정 시에는 리스크 요인 및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종목 위주로 비중확대 접근이 타당한 구간으로 판단.
- 보험 – 중립적 매크로 영향에 단기 매력도 부각: 보험 업종은 w-w 4.4% 하락하며, KOSPI와 유사한 흐름 시현. 다만, 이는 연초 이후 지배구조 변화, 계열사 지분 가치 상승에 따라 상승세가 높았던 회사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종목(메리츠, 현대)의 주가는 w-w 상승하는 흐름을 시현하였음. 펀더멘털 기준으로 보험 업종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 또한 존재하는 만큼, 현재 매크로 불확실성 지속 시, 보험 업종의 방어적 매력도 부각될 수 있을 전망.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22) 건설 및 캐피털 회사채는 약한 고리 – 당국은 신용경색 점검** -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안이 증가. 이에 당국은 건설채와 저신용 캐피털채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 단기적으로는 4월까지 20조원가량의 PF ABCP 만기 도래와 더불어 건설 및 캐피털채 금리가 시장의 약한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도. - 실제로 주요 건설사 회사채 금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후 0.3~0.4%p 상승하였고, 저신용 캐피털채 또한 금리와 유사한 속도로 상승. 다만, 이는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 또한 0.369%p 상승. - 한편 5대 은행들의 2월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0.1%p m-m 상승. 시장금리 상승 지속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	**건전성 개선 속도 저하 우려 불가피:** 당초 은행들이 제시했던 올해 CCR 가이던스에 기반한 CCR 하락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고물가 고유가 등은 물론 일부 서플라이 체인 상 생산 혹은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의 연체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은 우려 요인. **다만, 과도한 우려는 지양 필요 – 22년부터 시작된 디레버리징 고려 필요:** 다만,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22년부터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이 상당 기간 이뤄졌기 때문. 즉, 2~3년 전과 같은 급격한 부실 증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판단. **은행의 역할 증대에 대한 고민:**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 및 경기 악화는 분명 은행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 다만, 역으로 은행의 역할에 대한 니즈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 특히, 금번의 위기가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일시적 유동성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이는 역으로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니즈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필요.
	(3/22) 금감원, 홍콩 ELS과징금 감경 시사 – 다만, 재발 땐 선처 없음 경고 -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향후 홍콩 ELS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일체 감경 고려 없이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부과할 것임을 경고. 다만, 홍콩 ELS 제재 관련해서는 금소법 초기 시행 상황이고 자율배상 노력 감안 감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실제로 홍콩 ELS 과징금의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상정이 두 차례 연기되며 과징금 감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언급은 감경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 - 은행권은 현재 1.4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5천~6천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기대. 특히 이미 자율배상에 1.3조원을 투입한 은행권은 추가 감경은 필수라는 입장. - 특히, SC제일은행의 반발이 큰 상황. 동사는 1006억원을 자율 배상에 투입했으나 1천억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SC의 한국 영업 철수와 이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 우려까지 제기.	**계속 지연되는 홍콩 ELS 과징금:** 당초 3월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홍콩 ELS 과징금은 또 다시 연기된 상황. 이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시에 경감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 다만, 관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경감 규모 여부가 될 전망. 참고로, 경감 규모에 대한 기대치는 은행들의 26년 실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초래된 매크로 리스크 – 은행의 역할 증대 필요성도 고려 필요:** 연초와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매크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하에서 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일부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역할 증대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 필요. 즉,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당기순이익 감소 및 운영 리스크 증가에 따른 CET-1 비율 하락을 야기,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역량을 저해한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음을 고려 필요.
	(3/23)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자본 적립 부담 대폭 감경 추진 - 금융 당국은 그간 은행이 과징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약 6~7배를 RWA로 10년간 반영하도록 했으나, 향후 요건을 충족 시 해당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 자본 확충 부담을 줄여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겠다는 의도. - 참고로 당국은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유예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제도 정합성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 이와 같이 금감원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생산적 금융 확대 지원을 위함인 것으로 알려짐.	**은행 자본과 유동성 공급 역량은 정비례:** 은행에 요구되는 역할을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반면, 현재 일부 진행형인 과징금과 같은 이슈들은 은행의 자본비율을 장기간 낮추는 역할을 함에 따라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을 오히려 제한하는 역할. 이에 금융 당국은 보다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26) 금융위, 은행에 나프타 LC 확대 긴급 지시** - 금융 당국이 석유화학 기업의 나프타 수입용 신용장 (LC) 개설과 한도 확대를 은행권에 긴급 지시하였음. 원 달러 환율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여파로 석유화학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급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 - 참고로, 환율 상승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LC 한도 축소 및 이에 따른 수입량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 LC는 기업이 원자재와 물품 수입 시 은행 신용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업체에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지급 확약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시 은행의 역할에 대한 니즈는 더욱 확대 가능:**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은 보다 다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을 전망. 이 경우 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한 니즈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 **투자 심리에 부담 가능 - 하지만, 긍정적 여지가 보다 크다는 관점에서 접근 유효:** 단기적으로 은행들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는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다만, 현재의 문제가 구조적 이슈보다는 단기적 이슈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은행 역할 강화는 펀더멘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큰 것은 물론, 은행들의 현재 Valuation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3/26) 중저가 지역은 집값 가파른 상승세 - 노원구 '신고가' - 3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6% 상승. 미세하지만 지난주 0.055보다 상승폭이 확대. 이를 견인한 것은 노원구 0.23%, 구로구 0.20% 등 외곽지역. 성북, 은평, 강서, 영등포구 등도 오름폭이 컸음. 이들 6개 자치구의 공통점은 최대 6억원까지 주담대가 나오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이라는 점. - 참고로, 이들 지역은 최근 강남권과 달리 매물 증가세도 멈췄음. 오히려 15개 서울 자치구에서 매물이 감소했는데, 대부분 중저가 지역. -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396건 가운데 71%가 15억원 이하. - 반면, 강남구는 0.17% 하락하며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강남 4구와 한강 벨트 7개 지역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 심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는 강남권의 집값 하락에 일부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15억원 이하 집값은 규제의 틈을 찾아 상승하는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보도. 현재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는 중산층 중심의 주거 비용을 낮추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은 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은행 펀더멘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은행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올해 가계대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고, 오히려 공급대비 수요 확대는 은행들의 가격 협상력 강화를 시사하기 때문. **주거비용 및 금리 상승 - 내수 경기에 부담 요인:** 주거비용 및 금리 상승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소비 성향을 낮추고 내수 경기 부담을 높이는 요인인 만큼, 은행 펀더멘털에는 간접적으로 부담을 야기 가능. 즉,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현명한 정책 대안에 향후 초점 필요.
	(3/27) 금융지주 비과세 배당 러시 - 주총에서 주요 금융지주들의 감액배당이 통과되었음. KB금융 7.5조원, 신한 9.9조원, 하나 7.4조원, iM금융 0.29조원으로 확정. - 참고로 우리금융은 이미 지난 해 주총에서 감액배당 안건을 통과, 25년 말 기준 6.3조원가량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 이를 올해 초부터 적용. - 이들 비과세 배당은 주주 입장에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실질 수익률 제고 가능. 참고로, 해당 비과세 배당은 27년 초부터 시작.	**은행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강화 노력 표출:** 일차적으로 금번 비과세 배당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강화 노력을 표출한 결과로 평가 가능. 지난 해 우리금융의 은행권 중 최초 감액 배당 결의는 시장에서 동사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이에 다른 은행들 또한 모두 전향적으로 비과세 배당 안건을 통과함은 물론 규모 또한 상당 기간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도록 설정. **비과세 배당 - 단순히 배당수익률 확대를 넘어 비은행 강화에도 기여 기대:** 비과세 배당은 자회사로부터 지주사향 배당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 금융지주는 비은행 자회사의 자본력 강화 및 이에 기반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3/29) 주담대 금리 어느새 7% -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고 금리가 연7%를 상회하기 시작.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시장금리가 급등한 영향. 농협의 최고 금리가 7%를 상회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도 최고 금리가 연 5%대 후반에서 6%대로 상승. 주요 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는 3월 들어 0.3%p가량 상승하였으며 신용대출 금리 또한 0.25%p 상승. - 특히,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3월에만 0.55%p 상승, 4.121%를 기록함에 따라 주담대 금리 상승 압력을 증대. - 한편, 여전채 금리도 4.151%로 한 달 만에 56.5bp 급등. 이에 3~4개월 시차를 두고 카드론 금리에 이러한 금리 상승이 반영될 경우, 카드론 금리의 추가 상승도 가능. 참고로 카드사 평균 카드론 금리는 2월 기준 13.39%였음.	**금리 상승의 양면 - NIM에 긍정적 vs 매크로에 부담:** 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NIM에 긍정적 요인. 그러나, 결국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는 소비 및 건전성 악화로 귀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화에 따라 은행에 부담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 특히, 주담대 금리가 높아질 수록 주택 건설 등에는 부담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 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여부가 향후 관건:** 은행주는 단기적으로 최대 관건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여부가 될 전망. 현 상황의 장기화는 매크로 동력의 약화 등을 통해 은행 실적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3/23) 금감원, 급등락 장세 '빚투' 반대매매 주의보 – 레버리지 ETF 불완전판매 시 무관용 제재 예고** - 금감원이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증권사 할인율(15~30%)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분쟁 사례·투자자 유의 사항을 공개 -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올해 정기·수시 검사에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중점 점검하며 ELS 사태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 - 3/20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32.4조원으로, 연초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나 증시 급락 이후 증가세는 일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	**증권사 신용공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불완전판매 제재 리스크 부상:** 금감원의 레버리지 상품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은 증권사 영업 활동에 단기 부담. ELS 사태와 동일한 무관용 원칙 적용 시 일부 증권사에 과태료·제재 가능성 존재. 다만 현시점에서 신용융자 잔고 진정은 증시 추가 급락 시 반대매매 연쇄발 충격을 다소 완화하는 긍정 요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 관리(100%) 문제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재부각되는 구간. 레버리지 상품 판매 비중 높은 증권사에 대한 선별적 모니터링 필요.
	(3/25) SK하이닉스, 미국 SEC에 ADR 상장 등록신청서 비공개 제출 – 신주 발행 10~15조원 조달 추진 -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공시 - 신주 발행 방식으로 10~15조원의 달러 자금 조달이 유력하며,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나 구체적 규모·일정은 미확정 - 배경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총 600조원 규모) 건설 자금 조달이며, 현재 PER 5.7배(마이크론 12.1배 대비 절반 수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 기대 또한 존재.	**증권사 IB 수주 기회 확대는 제한적이나, 유동성 제고 효과 기대:** ADR 주관사 선정을 위해 외국계 증권사 중심으로 RFP가 발송된 만큼, 국내 증권사 IB 수익 직접 수혜는 제한적. 그러나 SK하이닉스가 SOX 지수 등 글로벌 지수 편입 시 패시브 자금 대규모 유입 → 코스피 유동성 증가 → 거래대금 및 증권사 수수료 수익 간접 수혜 기대.
보험	**(3/23) IFRS17 도입 3년 – 낙관적 계리가정 거품 현실화, 생보사 CSM 격차 확대** - IFRS17 도입 3주년을 맞아 보험사 간 CSM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면서 낙관적 계리가정의 부작용이 현실화 - 한화생명은 2023년 9.8조원이던 CSM이 2025년 8.7조원으로 감소, 삼성생명(10.8조→13.2조), 교보생명(5.0조→6.5조)과는 달리 신계약을 늘렸음에도 CSM이 하락하는 '비정상 패턴' - 금감원이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2분기부터 계리가정 보고서를 공식 도입하는 가운데, 손해율 가정 1%p 조정 시 보험손익이 5% 변동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재확인.	**계리가정 불확실성 상반기 내 지속 – 보험사별 CSM 신뢰성 재평가 국면:** 금감원 계리감리 착수 및 계리가정 보고서 공식화는 실적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낙관적 가정을 적용했던 보험사에 대한 CSM 재조정 우려가 투자 심리에 부담. K-ICS 취약 보험사는 계리 가정 조정 시 자본 하락 → 배당·주주 환원 여력 추가 축소 위험 존재. 보험사 실적 분석 시 공시 순이익보다 계리 가정의 합리성과 CSM 변동 패턴을 병행 검토하는 분석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
	(3/23) 5세대 실손 보험 4월 출시 최종 확정 – GA 채널 물량 경쟁에서 CSM·손해율 중심 수익성 영업으로 전환 - 5세대 실손 보험이 4월 출시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보험사들은 GA채널 절대 물량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CSM·손해율·유지율 중심의 수익성 KPI로 영업전략을 전환 중. -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하고 비중증 본인 부담률을 50%로 상향, 보험료는 4세대 대비 30~50% 인하 구조. - 5세대 출시 전 4세대 막차 수요가 단기 집중되고 있으나, 실질적 손해율 개선은 세대 전환 속도에 달려 있어 2분기 이후 지표 확인이 필요.	**보험사 중기 수익성 개선 방향성은 유효 – 단기 실적 변동성은 불가피:** GA 채널 물량 축소는 단기 신계약 보험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구조 개선과 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 기대. 5세대 실손 출시 후 세대 전환율이 손해율 개선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비중증 환자 보장 축소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전환율 하락으로 나타날 경우 손해율 개선 시점이 지연될 위험. 손보사 중 비급여 노출도가 낮고 CSM 보유량이 풍부한 메리츠화재·삼성화재에 상대적 수혜 예상. 1분기 신계약 CSM 및 GA 실적 발표가 업종 내 차별화를 확인하는 중요 이벤트로 기능할 전망.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3-30 (월)		미국 3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로존 3월 소비자신뢰지수
		독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영국 2월 협의통화 및 준비잔고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
		일본 2월 건설수주
		일본 2월 신규주택착공건수
2026-03-31 (화)	2월 산업활동 동향	미국 1월 주택가격지수
	2월 관광통계	미국 1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지수
		미국 3월 시카고 PMI
		미국 2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미국 3월 소비자신뢰지수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독일 2월 소매판매
		영국 4분기 경상수지
		영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영국 3월 주택가격지수
		일본 3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2월 실업률
		일본 2월 산업생산(예비치)
		일본 2월 소매판매(예비치)
		중국 3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2026-04-01 (수)	2월 온라인쇼핑 동향	미국 3월 ADP취업자 변동
	3월 제조업 PMI	미국 2월 소매판매
		미국 3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1월 기업재고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3월 제조업 PMI 확정치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2월 실업률
		유로존 3월 제조업 PMI 확정치
		독일 3월 제조업 PMI 확정치
		영국 3월 제조업 PMI 확정치
		일본 1분기 단칸 대형제조업체 업황판단지수
		일본 3월 제조업 PMI 확정치
		중국 3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2026-04-02 (목)	3월 소비자물가동향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26-04-03 (금)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대만 증시 휴장
		미국 3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3월 ISM 비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미국 3월 서비스업 및 합성 PMI 확정치
		일본 3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중국 3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및 종합 PMI 확정치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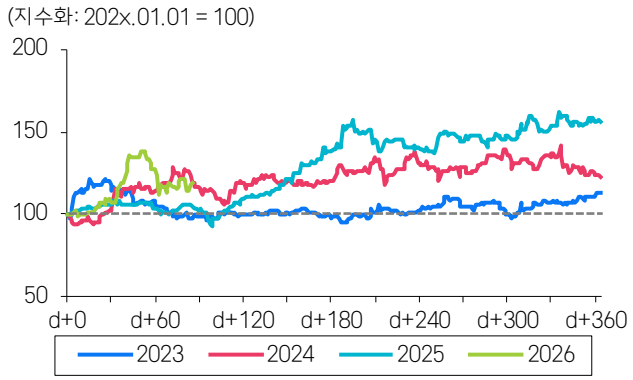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346.0	5,438.9						(5.9%)	(10.6%)	108.6%	29.1%
	KRX은행	202.0	1,554.3						(2.2%)	(10.6%)	78.6%	19.2%
	KRX증권	94.1	2,662.9						(4.0%)	(10.0%)	230.1%	74.1%
	KRX보험	96.9	3,221.4						(4.4%)	(10.7%)	79.0%	20.3%
	결제 지수**	1.417	n/a						(9.6%)	(13.9%)	58.3%	8.0%
은행	KB금융	56.7	152,200	57.9	0.9	11.1	8.4	11.9	(1.9%)	(9.2%)	89.8%	22.1%
	신한지주	44.4	93,500	54.4	0.8	10.3	8.0	14.9	(4.5%)	(6.0%)	93.2%	21.6%
	하나금융지주	30.7	110,400	50.1	0.7	10.5	6.9	11.7	(2.5%)	(12.4%)	79.2%	17.3%
	우리금융지주	24.7	33,600	42.2	0.7	10.3	7.3	9.3	(0.9%)	(13.8%)	101.3%	20.0%
	기업은행	18.8	23,550	35.5	0.6	8.9	7.0	5.3	(2.3%)	(11.5%)	51.8%	12.4%
	BNK금융지주	5.8	18,680	45.3	0.5	8.8	6.1	18.3	(0.9%)	(14.1%)	82.2%	17.7%
	JB금융지주	5.9	31,100	42.4	0.5	9.1	5.6	15.1	0.5%	(7.6%)	79.6%	21.2%
	iM금융지주	2.8	17,670	50.8	1.0	13.4	7.6	8.7	2.5%	(13.2%)	97.0%	13.6%
	카카오뱅크	11.8	24,650	50.0	1.6	7.8	21.5	14.0	(1.8%)	(12.0%)	8.1%	14.1%
증권	미래에셋증권	37.3	67,100	60.9	2.7	12.9	22.0	17.5	(0.9%)	(7.6%)	577.3%	188.6%
	NH투자증권	12.2	34,250	41.1	1.4	12.9	11.2	14.9	(3.8%)	(5.9%)	131.6%	62.3%
	한국금융지주	12.3	220,000	25.0	1.2	14.2	9.7	-19.1	(6.2%)	(18.5%)	195.3%	36.1%
	키움증권	11.4	435,000	29.5	1.6	20.7	9.0	26.4	(5.5%)	(7.0%)	226.8%	50.3%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7	116,400	50.0	1.7	22.8	8.2	14.9	5.7%	(12.8%)	(5.2%)	2.9%
	삼성화재	20.4	443,000	45.1	1.0	10.1	10.9	12.0	(6.6%)	(19.2%)	23.7%	(10.9%)
	삼성생명	44.6	223,000	46.3	0.6	3.7	15.9	17.8	(3.7%)	(9.3%)	160.2%	41.5%
	DB손해보험	12.0	172,900	32.3	1.1	16.6	6.6	9.0	(7.4%)	(11.4%)	91.3%	31.9%
	한화생명	4.1	4,720	16.4	0.3	5.6	6.3	37.8	(9.8%)	(8.9%)	82.2%	45.0%
	현대해상	2.8	31,450	11.7	0.5	17.5	3.3	18.3	0.5%	(11.3%)	38.5%	2.1%
결제	카카오페이	7.2	53,500	n/a	n/a	5.6	72.0	57.5	(16.8%)	(16.5%)	77.4%	9.0%
	NHN KCP	0.7	17,050	n/a	n/a	17.2	12.2	16.1	(16.0%)	(19.0%)	114.2%	14.4%
	KG이니시스	0.3	10,300	n/a	n/a	7.5	4.7	5.5	(3.2%)	(11.4%)	19.9%	0.8%
	KG모빌리언스	0.2	4,955	n/a	n/a	10.7	4.8	8.1	(1.7%)	(10.1%)	20.4%	5.4%
	나이스정보통신	0.3	26,050	n/a	n/a	9.2	5.5	29.7	(2.8%)	(3.9%)	45.2%	2.8%

참고: 3/27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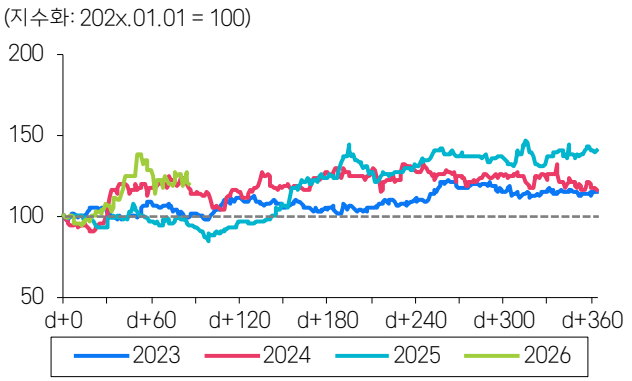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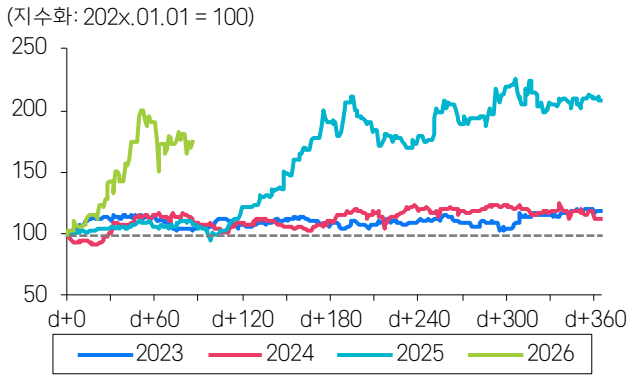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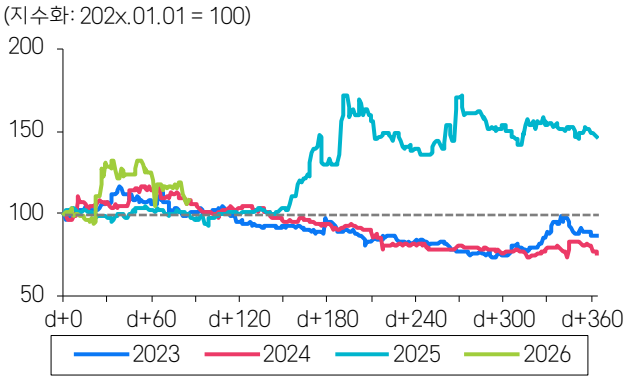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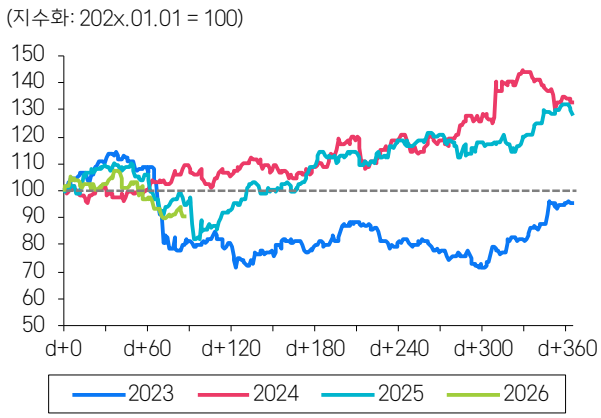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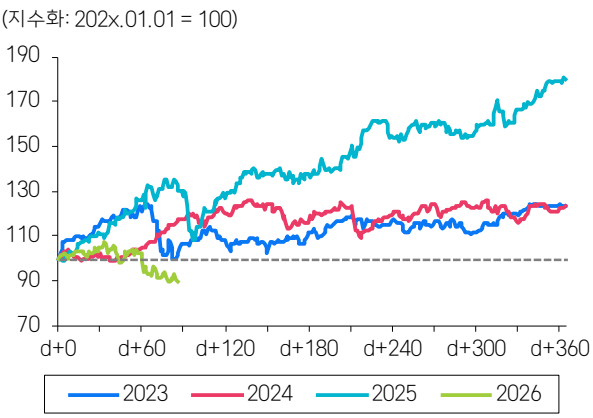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762.8	83.8	2.1	16.4	13.1	7.9	(1.3)	(5.8)	16.5	(12.2)
		Bank of America	335.6	98.5	1.2	11.3	10.8	12.5	(0.4)	(5.7)	13.9	(14.6)
		Citigroup	187.8	120.2	0.9	9.2	10.5	46.6	(2.0)	(2.6)	52.7	(8.0)
		Wells Fargo	238.2	97.7	1.4	12.7	11.0	11.9	(0.5)	(5.2)	9.2	(17.2)
		PNC Financial	81.6	73.6	1.4	12.8	11.2	9.3	0.3	(4.7)	17.8	(3.0)
	유럽	Banco Santander	158.7	62.8	1.3	13.4	9.0	9.1	1.7	(12.9)	48.8	(6.6)
		Unicredit	104.3	84.3	1.3	16.4	8.1	5.4	1.0	(16.8)	13.2	(15.1)
		BBVA	117.5	86.6	1.7	19.3	8.8	15.5	(0.1)	(9.3)	40.7	(10.7)
		ING Group	72.9	81.4	1.2	12.8	9.5	5.6	(1.0)	(11.8)	19.5	(8.9)
		Lloyds	70.2	84.0	1.2	13.7	10.2	41.8	(0.4)	(11.7)	23.2	(7.9)
		Barclays	69.6	64.0	0.8	10.7	9.1	21.1	2.2	(15.6)	30.2	(19.7)
	일본	Mitsubishi UFJ FG	201.0	61.1	1.4	10.7	13.9	21.7	#N/A	(8.5)	28.8	8.9
		Sumitomo Mitsui FG	125.3	54.3	1.3	10.7	12.7	36.6	#N/A	(12.5)	33.3	4.1
		Mizuho FG	99.1	68.7	1.4	10.9	13.5	35.4	#N/A	(10.8)	50.4	11.9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62.1	30.3*	0.6	8.9	6.5	2.2	0.3	2.6	20.6	5.2
		China Construction Bank	277.2	29.7*	0.6	9.4	6.2	0.5	0.1	1.3	20.7	5.2
		Agricultural Bank of China	320.5	29.9*	0.7	10.0	6.9	4.5	0.2	1.3	14.5	(6.9)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11.0	N/A	1.3	6.0	22.4	(32.5)	(2.4)	(7.0)	(11.0)	(6.8)
		AIG	39.1	76.3	0.9	10.1	9.5	흑전	(1.9)	(9.4)	(12.8)	(14.7)
		Travelers Insurance	61.7	77.7	1.7	17.7	10.5	(0.6)	(3.8)	(7.6)	9.0	(1.7)
	유럽	Allianz	153.4	80.8	2.1	18.5	11.5	10.3	0.9	(8.2)	(1.2)	(10.1)
		AXA	91.2	59.3*	1.6	17.1	9.2	(8.6)	0.7	(8.5)	(5.1)	(7.3)
		Generalli	59.7	58.6*	1.5	14.2	11.0	11.0	0.5	(7.3)	2.7	(6.2)
	일본	Tokio Marine	90.6	40.5*	2.7	19.7	14.2	(2.1)	#N/A	15.1	24.7	29.1
		Daiichi Life Insurance	33.4	56.3	1.4	12.1	12.6	(0.8)	#N/A	(10.1)	23.6	11.0
	중국	Ping An Insurance	144.2	34.3*	1.0	13.7	7.3	6.1	(4.0)	(12.8)	26.3	(9.0)
		China Life Insurance	136.2	20.1*	1.1	19.3	5.6	(17.6)	(11.2)	(20.8)	64.0	(8.7)
		PICC P&C Insurance	42.0	37.7*	1.0	14.4	7.4	10.3	(2.8)	(8.6)	2.8	(9.5)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46.1	97.6	2.1	16.2	13.7	13.8	(1.3)	(6.6)	47.8	(8.7)
		Morgan Stanley	251.5	72.2	2.3	17.0	13.9	11.3	(1.9)	(4.9)	37.3	(10.8)
		Charles Schwab	166.5	98.3	3.3	21.8	16.2	22.6	(2.4)	(3.0)	18.7	(7.6)
		Robinhood	59.5	39.4	5.4	21.4	27.4	17.6	(6.9)	(13.0)	57.5	(41.6)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00.4	82.5	5.8	34.9	16.6	14.5	(1.1)	(5.4)	10.1	(21.0)
결제	미국	VISA	576.8	21.7*	14.0	60.2	23.4	24.0	(2.0)	(7.7)	(13.8)	(15.7)
		MasterCard	431.9	17.6*	39.4	192.3	25.1	16.7	(2.4)	(6.4)	(10.4)	(15.2)
		PayPal	40.1	5.2*	1.8	23.1	8.4	(4.2)	(1.0)	(5.7)	(33.1)	(25.3)
	유럽	Adyen	31.0	0*	4.1	21.4	21.7	17.0	(0.9)	(14.0)	(41.0)	(37.8)
핀테크	미국	Block	33.5	0*	1.4	9.9	17.0	57.1	(5.7)	(12.1)	1.2	(14.0)
		Upstart	2.4	0*	2.7	20.3	24.0	129.3	(4.7)	(9.0)	(47.6)	(43.4)
		Affirm	14.2	0*	3.6	10.6	38.4	638.6	(2.9)	(9.5)	(7.9)	(42.9)
	중국	LuFax	1.6	N/A	N/A	N/A	N/A	흑전	(11.2)	(30.0)	(38.5)	(28.9)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3/27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현재 삼성화재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3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